

광주 우치동물원 2면

암표범 “애인 구해요” 코끼리 “광주 떠나요”

짜짓기 적령 지났는데 같은 종 없어

임대 7월 만료...市 2마리 구입 추진



“암표범이 애인을 찾습니다”  
 광주시 북구 생룡동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암 표범이 짝을 찾아가고 있다. ‘애인 구함’ 광고의 주인공은 몸무게 30kg·몸 길이 1m의 암컷 북중국 표범이다.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이 표범은 올해 7살로 우치동물원에서 먹이 등 사육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쓸 만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육사들의 따뜻한 관심과는 달리 이 표범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 짝짓기 적령기가 지났는데도, 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치동물원은 최근 이 표범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우치동물원에 같은 종의 표범이 한 마리 밖에 없는 데다, 전국적으로도 개체수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멸종위기동물인 만큼 종 보존을 위해이라도 짝짓기가 필요한데, 쉽지 않다”며 “하루빨리 짝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우치동물원의 최고 스타인 암 코끼리 ‘쏘이’와 ‘붕이’가 지난해 12월 초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쏘이·붕이와 함께 우치동물원에는 모두 9마리의 코끼리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코끼리 대여와 공연을 맡고 있는 (주)코끼리월드와의 1년 임대 협약이 오는 7월 만료됨에 따라 귀여운 아기 코끼리의 탄생을 지켜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코끼리를 구경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우치동물원의 공간 부족으로 코끼리 공연을 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코끼리월드가 부산·대전 등 서 너 곳의 동물원과 임대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코끼리월드 관계자는 “공연이 가능한 다른 곳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 코끼리 일부(마리당 2억원)를 사들이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교조 교사 징계 중단하라” 25일 오전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 10여명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교과부의 정치활동 및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삼성·LG 등 대기업 기능 인력 채용 경쟁

전문계고 3학년생 몸값 ‘금값’

올 들어 삼성·LG 등 대기업들의 기능 인력 채용 경쟁이 벌어지면서 광주지역 전문계고 3학년생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대기업들이 기능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계고를 찾아다니며 ‘입도선매(立稻先買)’에 나설 정도다. 일부 전문계고들은 대기업의 학생 조기 취업 요구로, 방과후 수업과 휴일수업 등을 통해 병점 수업수수를 맞추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13개 전문계고에 따르면 올 1월부터 각 전문계고에 취업 의뢰서를 보낸 업체는 삼성·LG 등 대기업을 포함해 평균 40곳이 넘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전남여상은 최근 삼성과 LG 등에서 학교를 방문해 면접과 동시에 취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올해 광주지역 13개 전문계고의 고 3학년생은 5000여명 정도인데, 벌써 200여명이 대기업에 합격한 상태다.  
 전문계고생이 대기업 기능직에 들어간 첫해 연봉이 최고 2800만원에 이르고, 기숙사에 입주할 경우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는 등 우대를 받는다.  
 이 같은 과격적 조건은 채용열풍을 몰고 오고 있다. 제조업체들도 경기 회복세를 타고 가동률을 높이면서 현장의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의 전문계고생들은 2009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채용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지역 전문계고생들은 지난해에도 졸업생 4640명 중 대기업 488명 등 1500명이 취업에 성공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취업률(32.3%)을 기록하기도 했다.  
 광주전지공고 김성영 교장은 “올해 전문계고 3학년들은 축복받은 학생들”이라며 “채용 열풍에다 시교육청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 등이 성과를 거두면서 입맛에 맞는 대기업을 선택해 들어갈 정도”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2분 / 해질 19시 37분 / 달뜨기 18시 05분 / 달지기 03시 37분

오랜만에 파란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다.

구분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다	12/25℃
목포	구름많다	13/22℃
여수	구름많다	14/20℃
완도	구름많다	13/23℃
구례	구름많다	11/25℃
해남	구름많다	12/23℃
장흥	구름많다	12/23℃
고흥	구름많다	12/23℃
순천	구름많다	13/23℃
영광	구름많다	12/22℃
진도	구름많다	13/23℃
전주	맑음	12/23℃
남원	구름많다	10/22℃
목포	구름많다	13/18℃

지외선지수: 낮음 / 식중독지수: 주의 / 황사지수: 낮음

◇주간날씨

날짜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1(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5	13/26	14/25	15/25	14/26	14/26

이승범 광주지방경찰청장 숨져

경찰, 순직 처리 추진

이승범(56) 광주지방경찰청장이 25일 갑작스럽게 숨졌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8시18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관사 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청장은 최근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식 경비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비상 경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청장의 시신은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 안치됐다. 장례식은 27일 조선대병원에서 경찰청장으로 임수된다. 고인의 시신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장성 출신인 이 청장은 광주상고와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1년 간부후보생 26기로 경찰에 입문,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전남지방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참사 때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재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상쓰고 어깨 누르고 성관계 했다면 강간”

서울고법 판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로 걷어차거나 뿌리치는 등 합법적 반항하지 못했다더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남녀의 신체·심리적 차이, 성관계에 이르는 경위, 강제의 명백한 거부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문씨가 협박한 인상을 짓고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간죄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행력 행사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번 결정은 강간죄에 규정된 폭행과 협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연협뉴스

**승촌시리 승도**

엔도라도리조트

**기름이든 매일은행: 5월 31일부터**

10,000원 / 10,000원

**전문의 수명 늘리기 UP**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511-0444, 010-6603-0405

**제3기 영어 감성리얼 시도사ISC-티 교육생 모집**

교육생 모집